



SARANG

**뉴스 02**

광주 건축물 층수 해제...탄력적 경관 관리로

**뉴스 03**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시대 첫 정기총회 성료  
2023년도 1차 건축사 자격시험 치러  
2022 광주도시재생 백서 발간

**오피니언 04**

광주란 도시를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종합 05**

사랑에서 \_ 세한도  
건축사 만평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남건축사회 정기총회 성료  
순천목재문화지원센터 본격 운영

**광주 지역 뉴스 08-09**

광주건축사회 3월 24일 정기총회 준비 이상무

**전북 지역 뉴스 10-11**

전북건축사회 3월 21일 정기총회서 만남시다

**오피니언 12**

사랑&시선 \_ 의무가입시대 읽는 건축사현장  
한 편의 시 \_ 봄날은 왔는데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3.16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광주 건축물 층수 해제...탄력적 경관관리 방향 맞으나 주관적 심의 객관화 중요

**주거 30층 상업지역 40층 5월 폐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카이라인 운영  
광주시 디자인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시의회, 4월 5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

광주시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 지역 30층으로 규제한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번 발표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층수 해제를 건설업자들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디자인 강조로 도시 경관 계획 심의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가 마련 중인 도시 경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1일 민선 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광주시가 2021년 7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 억제를 위해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 건축물 층수 관리 원칙은 1년 8개월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4~5월)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중점 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 이 구역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무등산 녹지·아시아문화전당·송정역세권·영산강·광주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또한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광천사거리·백운광장·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획일적 층수 제한을 해제한다. 광주 북구 우산동 주택가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층수 제한 폐지에 맞춰 통합 심의제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 건설 기획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40여 건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8~10개월이 소요되는데, 통합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중장기 과제로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과 연계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지역사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층수 제한 해제를 특혜로 접근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에서 현행 30층 이하로 제한된 주거용지 용적률 220%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어 별 의미가 없고, 상업용지 용적률도 400%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 경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또 다른 형평성,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광주시의회가 이번 광주시 도시 경관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은다. 광주시의회 주최로 오는 4월 5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건축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여는데,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 높이 제한으로 아파트 건립 제동...쌍촌동 호남대 부지 '핫이슈'

### 민선 7기 층수 관리 내용은

광주시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도심 층수 제한 해제 방향은 민선 7기 광주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기준선 제거이다. 이 기준선을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한다고 하나, 사실상 원상회복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공공재인 도시 경관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발표했다. 광주시내에서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40층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제3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하로 관리를 규정했다.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가 2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를 23층 이하로 묶었다.

평균 층수는 모든 동의 지상 연면적 합계를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이고, 기준 면적은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해 별도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까지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에 적용했다. 도시계획 변경협상에서 조건이었던 전국 현상 설계공모를 거친 쌍촌동 호남대 부지는

이 원칙 적용으로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15층에서 34층으로 설계된 아파트 중 34층이었던 2개동은 30층으로 다시 조정돼야 했다. 당시 광주시의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은 붓물터진 아파트 건립에 대한 일단 멈춤의 성격에도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 2023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한시 운영으로 물러섰다.

특히 시정 책임자의 분명한 도시계획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에 대한 일률적인 용적률(400%) 적용은 결과적으로 일방적 행정의 독선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민선 8기 건축물 층수 해제 방향에서도 상업지구 용적률 차등 적용 언급은 없었다.

#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시대 첫 정기총회 성료

감사에 오영섭...외부 포함 이사 14명 선출...강형선, 박재홍 회원 등 공로상

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조용천 국회의원과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 한형민 전남건축사회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 회장단과 전국 시도대의원 3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정명철 본회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57회 정기총회는 3년만에 대면 총회로 열려 의무가입시대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공공 조형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건축사협회 주요 과제로 민간 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회원 단합을 보여주는 축제처럼 치러졌다. 상정된 2022년 일반특별 수지결산안,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이 원안 의결됐고, 감사, 이사 선거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집행부는 3년만의 대면 총회여서 각 시도 대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내심 긴장했는데, 2시간만에 마무리돼 안도했다.

이날 초청된 외부 인사들은 본격적인 의무가입시대를 출발하는 협회와 건축사들을 응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건축사협회 총회를 축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국회의원은 “의무가입시대를 맞아 건축사 역할도 커지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도 커졌다”면서 “기후 위기로 한복판에 물려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건축 모델 정립에 건축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의무가입 개정 당시 국토위 민주당 간사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2월 23일 서울 대한건축사협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의무가입시대 새로운 비상을 다짐했다.

던 조용천 국회의원은 “건축사현장에는 건축사 역할을 조형창작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공서 민원인으로 여기는 엄연한 상황에서 의무가입 입법은 꼭 필요했다”며 “지금까지 쟁이에서 머문 것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 전문예술인으로서 도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오영섭 건축사가 임기 2년의 감사로 선출됐고, 14명의 이사 후보가 박수로 추대됐다. 이번 이사진 구성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역사상 외부 인사 4명이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 30%를 외부인으로 총원한다는 정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강형선 회원과 박재홍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전남건축사회 장인영 회원, 전북건축사회 김종용 회원이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오영섭 감사 강형선 회원 박재홍 회원



장인영 회원 김종용 회원

## 2023년도 1차 건축사 자격시험 치러

### 4월 21일 합격자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제1차 건축사 자격시험을 지난 3월 4일 전국 대도시 위주로 26개 시험장에서 실시했다. 광주전남북 응시생들은 광주 성덕중학교와 전남공고에서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9시간 동안 시험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은 1교시 대지계획, 2교시 건축설계 1, 3교시 건축설계 2 등 3과목을 치렀다. 이번 건축사 자격 시험 대상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실무 건축 경력, 건축사 실무 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 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건축 실무 경력을 입증한 이들이다. 시험장인 광주 성덕중학교에서 치른 응시율은 1교시 288명 출원에 173명이 응시, 60%를 기록했다. 2교시 건축설계 1은 288명 접수에 173명이 시험을 치러 64%, 3교시 설계건축 2과목에서는 288명이 신청했으나 166명이 응시했다.

전남공고에서 실시한 1교시는 148명이 접수해 92

명이 응시했다. 2교시에는 150명 원서 접수에 98명, 제3교시에는 156명 출원에 88명이 시험을 치렀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다. 건축사 합격 예정자 발표는 4월 21일이다. 과목 합격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해당 과목이 면제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지난 2020년도부터 1년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다.

## 2022 광주도시재생 백서 발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대표 남승진·사진)는 2022 광주도시재생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발간한 백서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이다. 광주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추진과정, 부문별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어 도시재생 현장 파악과 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광주도시재생백서는 지난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4부로 구성됐다. 1장은 현재 광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과 백서를 소개했다. 2장은 뉴딜사업과 새마을사업, 예비사업으로 세분화해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변화상과 향후 계획과 미래를 담았다. 3장은 광주도시재생활성화지역 60개소 중 사업 미선정 지역인 43개소의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수록했고, 마지막 장은 지역 내 전문가, 현장지원센터장 및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광주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남승진 대표는 “이번에 발간한 백서를 통해 시민과 활동가들이 광주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광주란 도시를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창울 건축사

- 전) • 대학교수 8년,  
 겸임·강사 20년
- 광주건축사회 회장
- 광주건축도시문화재단  
 제1·2회 준비위원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부회장
-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도시설계학회,  
 건축정책학회 정회원
- 현) •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4회 연임)
- (주)GA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 광주 도시 읽기, 설명하기

건축산업은 그 국가와 그 도시의 격을 높이고 성장을 가져온다. 건축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건설산업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커 온 건축산업은 그 도시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건축학회). 40년 산업화·도시화 혁명으로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없어 타 시·도로 빠져 나간 광주·전남·북의 인구는 150만명이 넘는다(통계청). 광주란 도시는 전남·북의 인구를 수용할 만한 산업체가 없었고, 먹고 살만한 가치가 없어서이다.

### - 광주시민이 범법자가 되는 임의규정

정책은 필드액션이다(정책학회). 법, 령, 규칙, 조례의 위임 안에서, 정한 임의규정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법을 총리가 시행령을 장관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광주시민만이 상위법을 지키지 말고 임의규정을 지키라는 억강제는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높이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은 도시면적 전체 1.8%뿐이다. 이의 가로구역별높이제한(시조례)은 그 대지 중심깊이에 1.5배 높이로 이미 제한하고 있다. 광주의 가로구획은 협소하여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블록은 거의 없다. 설계를 해보면 5만㎡ 이상이어야 50층의 건축물을 겨우 지을 수 있다. 전국에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130여 동이 있다. 이 지역은 GDP 7만불이 넘는다.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높이 규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임의규정의 총수제한을 감성적인 언어로 억강제하는 논리는 광주를 지속적으로 피폐화 시켜왔다. 이번 우리 시는 총수제한을 철회하여 상위법의 총수기준을 적용기로 발표했다. 과도한 용적률 및 총수 제한은 우리 광주에서만 규정하는 제도이다.

### - 개발자의 이익 편견과 주택보급률의 허수

광주는 인천·경기지역과 비교할 때 용적률이 85% 수준이어서 건설사들은 사업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곧 고용증대, 세수증대, 실업문제 해결 등을 가로막고 있다. 총수와 용적률 상위법 적용기준은 광주시민에게 경제적인 분양가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유럽 도시의 사례를 든다. 땅이 넓고 인구는 적은 유럽의 도시들과 국토는 좁고 토지가동률은 25%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는 객관성이 있을 수 없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6.8%이다. 골목마다 난립된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옛 주

택지의 공·폐가 등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주택보급률로 계수되어있다. 광주의 자가율은 58%(주택건설협회)이다. 선순환구조상 주택보급률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 일견은 광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 한다. GDP 꼴찌 도시에서 초고가의 단독주택 건축이 어려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다.

###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환원과 건축산업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는 우리 광주에서만 억강제하고 있다. 7대 광역시처럼 이를 환원하여 건축산업의 원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특히 주거용도 400% 용적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다. 수도권에서 공실 업무시설을 주택법에서 취·등록세 때문에 주거용도로 변경했다. 이러한 주택법의 용어정의를 건축법시행령 용어정의로 우리 시는 차입적용하고 있다. 비유를 들면 핸드볼 경기는 손으로 득점하고 축구는 발로 득점하는 경기인데 이는 축구 경기에서도 손으로 골을 넣어 득점하는 모순된 규정이 된다(국토부). 무등산이 꼭 보여야 하는가? 경관은 국토경관, 도시경관, 가로경관, 상업지역경관, 준주거지역경관, 주거지역경관이 있다(정책학회). 원경, 중경, 근경에서 도시 경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서 무등산이 보여야 한다. 이는 광주도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경관개념이다. 이제라도 재정립 될 때라 여겨진다.

### - AI 선도 도시, 결연

지금은 알고리즘이 조합되는 시대이다. 알파고II 알고리즘은 2.6 × 10<sup>845</sup> 무량대수이다. 챗 GPT는 4천억개의 생숙된 파라데이터가 인간과 대화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다. 허가를 득하려면 40건의 심의를 거치는 우리만의 특수한 규제가 있다(전, 송효상 국건위원장).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구는 건축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건안성)를 도입, 설계도서 오류를 체크해주면 이를 근거로 바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29개 용도별 체크리스트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1만개도 안된다. 인·허가 및 사업승인기간 425~480일(FKI)이 90일로 단축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인간이 정해 주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 스스로 분석해주는 알고리즘 AI에 의한 통합심의, 인·허가, 사업승인, 특별건축구역지정, 사전(신속)공공기획제 도입 등 규제혁파의 AI 선도도시, 다시 모여드는 도시, 먹고 살만한 도시, 광주의 미래상을 제안한다.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사랑에서 \_ 아흔아홉 번째

세한도

여행, 참 좋다.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복, 시간을 낼 수 있는 복, 감당할 정도의 걱정만 있는 복이다. 얼마 전 충남 예산지역 몇 군데를 다녀왔다. 여행은 나와 대화시간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다듬곤 한다.

추사고택과 기념관을 거닐면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삶을 되돌아봤다. 그의 삶을 말해주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아마 세한도(歲寒圖)일 것이다. 이는 1844년 그의 나이 59세 때, 제주도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제자인 우선 이상적(藜船 李尙迪)이 정성을 다해 청나라 연경에서 구해온 책을 보내주는 등 변함없이 사제의 의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세한송(歲寒松)에 비유하여 그려준 그림이다. 추사 생애 최고 명작이다. 제자의 변함없는 의리를 공자님 말씀을 담은 「논어」의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빌어 칭찬하고 그림으로 표현했다.

세한도는 여백이 많은 화면과 둥근 문이 있는 소박한 집 좌우로 네 그루 나무가 두 그루씩 놓여 있다. 세 그루는 잣나무이고 한 그루는 소나무다.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초기 개념 스케치 정도로, 쉽게 막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에 숨은 내공과 담긴 내용은 쉽게 근접할 수 없다. 보면 볼수록 많은 가르침의 소리가 들린다.

시인 도중환은 추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세한도>라는 시를 남겼다.

//소한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꼳꼳한/ 어린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허리에 무수리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같참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시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 내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으로 더욱 빛나는 것을 부러워한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나 또 다른 푸르른 나무도 있음을 잊지 말자고 한다. 모두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고 한다.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산다.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산다. 나와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스친 인연이 필연이 되어 의리를 지키면서 평생을 사는 만남도 있다. 어떤 만남의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다. 서로에게 악한 짓을 행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추운 겨울날에도 변함없는 송백(松栢) 같은 서너 명의 길동무만 있다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두 명도 쉽지 않다고도 한다. 나는, 우리는 어떠한가? 혹여 나는 누구에게 송백 같은 존재인가?



박홍근 건축사(자문위원. 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내게도 돌아온 해체감리

정태호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광주)/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주현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임태형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편집국장 이용규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해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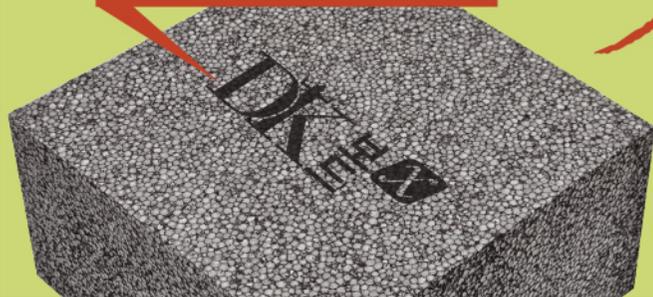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자재  
KIRA 2022.6 ~ 2025.5



행명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보트 X

DK보트-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트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60 / 대지면적 : 1,478.00㎡ / 건축면적 : 438.61㎡ / 연면적 : 1,375.91㎡ / 규모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3년만에 만난 회원들 웃음꽃

전남건축사회 정기총회 성료...감사에 윤대근 건축사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8일 오전 순천 에코그라드 4층 홀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3년만의 대면 총회였던 이날 총회는 전남건축사회를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놓은 역대 회장단,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 정인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김재록 서울건축사회장, 정내수 경기건축사회장, 정영수 전남도 과장 등 내빈을 비롯한 전체 회원 383명 중 20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의무가입시대를 축하하고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3년만의 대면 행사답게 오랜만에 만나는 타 지역 회원들과도 삼삼오오 모여 반갑게 정담을 나누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전문 직업인이자 공인으로서 출발을 하는 신입 회원들이 선배 회원들과의 상견례로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안건 처리로 진행됐다.

한형민 전남건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거두고 대면 총회를 기쁜 마음으로 열게 됐다”면서 “사업자이자 국민들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축사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비상 날개를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의무가입 법개정은 당초 회의적이었으나 회원들의 열망과 응원으로 정부에 보란 듯이 해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면서 “앞으로 건축계의 또 하나의 최대 현안인 민간 대가 현실화를 위한 법개정에 힘을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영수 전남도 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건축사들이 만들어가는 건축물은 우리를 담아내는 무한한 공간이 되고 있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도 직결된다”며 “건축사들의 공적 활동에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총회 감사선거에서는 단독 추천을 받은 윤대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3월 8일 순천 에코그라드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가 맞아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근 후보를 박수로 추인했다. 이사 선거에서는 배종수, 이경일 후보가 연임됐다. 선출 대의원 9명은 각 지역 건축사에서 안배된 후보를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퇴임 임원 5명(양인승, 김동식, 한만호, 범정, 정현구)에게 유공 공로패를, 12명의 시군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문의전화 : 061-334-883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및 상가 '우하빌'은 주거밀집지역에 연접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 계획하였다.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소, 3~4층은 주거공간으로 주거와 상가의 동선을 분리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높였고, 다가구의 하부픽스창과 상부미서기창을 설치해 주거공간의 개방감을 살려 사계절 따뜻한 햇살과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았다.



3년만의 대면 총회로 열린 이번 총회는 본격적인 의무가입시대를

## 장흥건축사회 또 새집 선물 장동면에 신축...올해 2채 더 지어



장흥지역건축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장흥 희망가꾸기 40호 주택 신축 준공식이 2월 27일 장동면에서 열렸다.(사진)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장, 강인수 장흥지역건축사회장 등 주택 신축에 힘을 모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석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은 집을 세대주에게 선물했다. 이번 장동면에 신축된 주택은 지붕 누수로 중천장이 내려앉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다문화 가정 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은 지난해 7월 이리

## 나무가 주는 선물, 순천 목재문화센터 본격 운영

순천목재문화지원센터가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 방문객을 맞는다. 순천목재문화지원센터는 해룡면 여순로 일원 순천만잡월드 옆에 나무형상을 띤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도비 72억, 시비 18억원 등 총 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목재문화지원센터는 1층에 전시실, 목공체험실, 목공기계실,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목공체험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유아놀이터가 갖춰져 있다. 목재문화지원센터는 3월부터 단순 제작에서 공구를 활용한 작품 제작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다.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유아, 초중고생, 성인 등 선택 가능한 25개 항목이다. 유아는 KC 인증 목재 장난감, 초중고생은 우드 버닝, 목공 기계 체험, 성인은 도마만들기, 사각 상자 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목재교육전문가 및 목공체험지도사를 채용해 지역



운영에 들어간 순천목재문화지원센터. 전남도 제공

유치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체험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험 가능하다. 연령별 맞춤형 체험 인원은 오전, 오후로 나눠 각 20명이다. 또한 목재문화지원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목공전문자격증반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예약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 사정을 접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외부 복지재단과 후원자를 발굴해 7700만원의 후원금을 확보했다.

후원자들의 손길로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을 갖춘 56㎡ 규모의 깨끗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탈바꿈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택 매칭그랜트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개인 후원자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군과 장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축 비용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신축에 들어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장흥지역건축사회 부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 및 인허가, (주)일등환경에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모음건설에서 건축 등 재능 기부를 했다. 장흥지역건축사회는 올해 사업으로 참여한 희망가꾸기 주택 신축 41, 42호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장흥지역건축사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장흥 희망가꾸기 주택 신축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주복지재단과 연계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해 마음으로 지은 보금자리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선물해오고 있다.

### 전남 회원동정

#### • 입회를 환영합니다



- 이광준 건축사  
반 건축사사무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1, 3층



- 임석규 건축사  
가람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8, 2층

#### • 전입

- 손미애 건축사 / 예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30, 1층

#### • 변경(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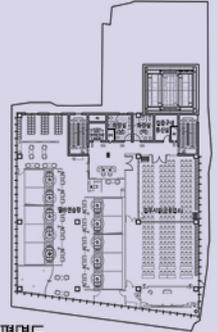
- 이영수 건축사 / 지엘종합건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6-1



## MG금남새마을금고

심상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AD그룹SIM  
 광주 남구 봉선로84번길 3, 306호  
 Tel. 062-676-3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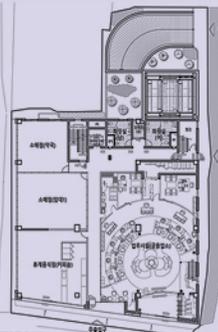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예술의거리를 건다 보면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이 건물의 대지는 전면 25M, 측면 7M 일방로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다. 주차계획은 앞이 막힌 도로 쪽 대지를 확보하여 진입로 록했다. 입면 이미지는 금융 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부층은 화강석, 상부층은 커튼월과 조합하여 구성했다. 상업 건축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3층 전면을 뒤쪽으로 놓으면서도 3개의 원형 기둥으로 수직감을 주는 변화로 역동성과 입면의 전체적인 리듬감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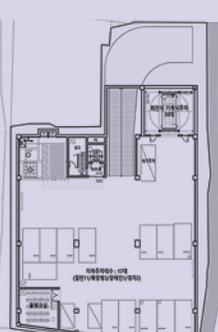
지상 5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 / 건축면적 : 779.29㎡ / 연면적 : 4,406.16㎡ / 건폐율 : 68.25% / 용적률 : 313.41%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용도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화강석, 커튼월, 테라코타패널



## | 광주건축사회 2023년도 4월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해 광주건축사회 202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 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교육 시간	교육비	장소
4월	11일(화) 14:00~15:00	윤리	꼭 알아야 할 건축사 윤리규정 준수 의무	정명철 (광주건축사회 윤리위원장)	1시간	무료	광주 건축사 회관 5층
	11일(화) 15:00~17:00	전문	기계설비 설계실무	송준영 (한국ESP)	2시간	30,000원	
	25일(화) 14:00~16:00	전문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설계 적용 실무	박현중 (광주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시간	30,000원	
	25일(화) 16:00~18:00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가이드	장현진 (국도안전관리원)	2시간	30,000원	

- (3) 교육대상 : 건축사, 건설기술자(전문교육만 해당)  
 (4) 교육신청기간 : 3. 13(월)부터 교육원 홈페이지에서(www.kiraeb.or.kr) 신청  
 (5)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7)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8)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 3월 24일 준비 '이상무'

## 위더스웨딩홀 5층서 3년만에 대면 행사...감사, 이사 등 선출

광주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3년만에 전 회원이 참석해 본격적인 협회 의무가입시대를 맞는 건축사들의 권익 증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새로운 비상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사전 행사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악 5중주단이 웅장한 연주로 개막을 알리는 축하 공연을 마련, 3년만의 대면 총회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김준철 건축사 사회로 진행될 정기총회는 총 2부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표창장과 감사패·공로패 전달, 정인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장학금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부의 안건인 광주건축사회 회칙개정,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 결산안 승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임기 만료되는 감사 1명에 대한 후임 감사도 선출한다. 감사 후보로는 김삼현(길 건축사사무소) 건



광주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 공보물.

축사가 단독 출마했다. 임기 만료된 이사 7명에 대한 후임 인선도 이뤄져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총회에서 공로패를 받는 건축사는 9명(정재한 감사, 이영문 이사, 강형선 이사, 강동영 이사, 김도석 이사, 김준철 이사, 장기숙 이사, 장정수 교육청 TF 팀 위원장, 주형신 원로회원)이고, 감사패를 받는 외부 인사는 8명(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 임승현

광주시 회계과 주무관, 최민주 광주 남구청 건축과장, 한경희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장, 위순영 광산구 건축과 팀장, 이승석 광주 동구청 건축과 주무관, 이세준 광주 북구청 건축과 주무관, 조영우 광주시교육청 학교시설 1팀장)이다.

이날 총회는 광주건축사 연금관리회 제17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41차 정기총회도 겸한다.

사무처는 이번 3년만의 대면 총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을 의식하고 한달여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 총회 안건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총회가 3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돼 회원들의 기대감도 높다"면서 "전 회원들이 참석해서 의무가입시대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제31대 광주전남건축가회 새 회장에 이순미 건축사

"한국건축가협회가 올해로 61년을 맞습니다. 쌓아온 협회의 연륜에 맞는 성숙한 모습으로 전문가답게 광주전남 건축 정책에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1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선출된 이순미 회장은 지난 10일 광주전남건축가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으로서 첫 조직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역할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전남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가온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이 회장은 건축과 도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사)장애헤는 세상만들기 상임이사로 18년째 유니버설 디자인과 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심의위원, 전남도 공공건축가 등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경관대상(201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2013년) 등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를 비롯해 건축사, 건축학회 등 광주전남 건축 3단체에서 최초의 여성 회장을 맡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충남건축사회장과 부산건축가회에서 여성 회장을 배출한 적은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유리천장인 건축계에서 이 회장이 보여줄 리더십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건축은 미래를 지향한다. 30~4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으로 전문가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면서 "건축가가 잘하는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해 편안하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교수와 건축사 등 110명이 참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31대 광주전남건축가회 임원진은 수석 부회장에 김기준 건축사, 부회장에 정영석 건축사, 최재영 교수, 김준택 교수, 최보은 건축사, 강형주 교수로 구성됐다.

## 광주시교육청 발주 소규모 공사 설계비 현실화

### 5월부터 5000만원 미만 설계요율 5.706%→7.06%로 상향

광주시교육청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오는 5월부터 소폭 상향된다. 광주건축사회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개선 테스크포스팀의 활동 결과여서 향후 공공기관의 소규모 공사 설계용역비 현실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교육청 학교시설 설계 용역 개선 시행안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5000만원 미만 설계요율 5.706%를 7.06%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 공사 규모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했다. 이는 현재 건축 설계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정한 것보다 규모를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5000만원 미만 사업에서 산출용역비가 170만원 미만 때 17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산출 용역비가 210만원 미만 시 210만원을 적용한다. 또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단일설계와 복합설계로 다시 나뉘었다. 단일 설계에서 산출용역비가 280만원 미만일 경우 280만원, 복합설계에서 산출용역비가 330만원 미만에는 330만원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مطم한 화장실 조성사업,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같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디자인 설계 용역은 추가 업무 비용을 계상토록 했다.

아울러 무장애 인증 설계비용, 설계 안전대장 작성 비용,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등 설계 용역의 추가 과업도 비용에 반영한다.

특히 발주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나 내진 보강 사업의 범위에 따른 사업비 과다 증감 때에도 설계 용역비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건축사 48명이 참여한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설계 용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와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건축사회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개선 테스크포스팀은 장정수 위원장, 김준철, 장기숙 이사가 참여해 광주시교육청과 지난 2022년 10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장정수 위원장은 "우리 광주건축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100% 관철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번 협상안이 마중물이 돼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다른 공공기관 설계 감리 용역 현실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 회원동정

#### • 입회를 환영합니다



- 위성태 건축사  
신우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4-14, 2층

#### • 부고

- 정필수 건축사 / (주)반석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3년 2월 19일(일)



**강인하우스**

김우철 건축사 / 예감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 Tel. 063-288-9380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508-1 외 2필지 / 대지면적 : 1,057㎡ / 건축면적 : 200.79㎡ / 연면적 : 192.42㎡ / 규모 : 지상 1층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징크마감

**전북건축사회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만남시다**

그랜드힐스턴호텔사...감사, 이사 등 신규 임원도 선출

전라북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가 3월 21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협회 의무가입시대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회원 단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면으로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번 제57회 정기총회에는 회원 2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영상 메시지로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격려사, 도내 기관장들의 축사 등으로 의무가입시대 건축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할 전망이다.

총회는 1부 개막행사와 함께 2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막중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새출발을 하는 신입 회원 건축사 28명 소개, 2022년 수지결산 승인, 2023 예산 승인, 회칙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 선거에는 최태규 건축사(다다 건축사사무소)가 단독 출마해 회원 신입 투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 만료 이사 11명과 대의원 1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전북건축사회가 3월 21일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상을 다짐한다. 지난해 정기총회 모습. 전북건축사회 제공

회원수 증가에 따른 대의원 추가 선출 여부도 결정된다. 2023년 3월로 임기만료된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로는 △이길환△김경태△김성규△서봉욱△신태용△이성열△이행욱△장종우△조영수△최진호△박경만(결위) 등 11명이다. 감사 임대현, 대의원 △전병갑△송숙희△신태용△육광돈△이길환△이성열△이행욱△장영기△장종우△조영수△최진

호△박경만(결위) 등 12명이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은 “의무가입시대를 본격적으로 맞는 첫 해 정기총회여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총회를 축제처럼 즐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지난해 총회 이후 33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해 현재 495명이 활동하고 있다.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용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상징 자이언트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처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평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시행의 기술인력보유 (15명당 1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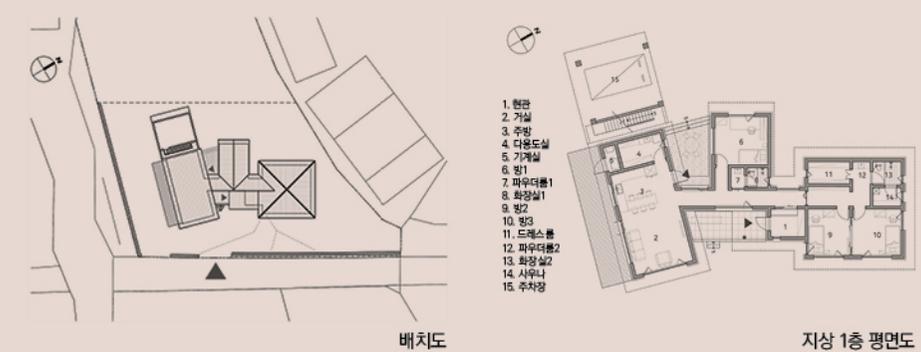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코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



건물의 구성은 본동과 부속동으로 나뉘지며, 본동의 매스는 복도 중심으로 부부공간, 자녀공간, 공용공간 총 3개의 매스로 이루어진다.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으며, 남측에 커튼월을 설치하여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본동의 지붕 경사를 북측 주차장 옥상으로 연계하여 건물 매스에 자연스러운 사선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부속동인 주차장은 북측 마당과 연계하여 배치했으며, 주차장 내부와 옥상은 마당을 바라보며 휴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건축주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한다. 일터 옆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개성 넘치는 부부의 인생 제2막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란다.



## 전주시 방치 빈집 정비 주민 편의공간으로

올해 5곳에 11억 투입하고 2026년까지 46억 들여 총 20곳

전북 전주시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억 6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내 빈집 정비 및 매입을 통해 '생활 SOC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5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46억4000만원을 들여 매년 5곳씩 총 20곳을 매입해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기타 편의시설 등 생활 SOC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부서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생활 SOC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지는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전주 도심 외곽 지역과 달동네 등에서 1년간 전기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 거처와 범죄 온상으로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다. 전주시는 지난해 1년 이상 거주



도심의 빈집 정비는 주민 주거 복지에도 기여한다.

또는 사용하지 않은 797채의 단독주택과 155세대의 연립주택, 218세대의 다세대주택, 44채의 무허가 주택 등 총 1214호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전주시의 대대적 도심 빈집 정비는 지역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남원 이백골에 옷칠한옥

남원시, 3채 상량식 열어

남원은 예로부터 목기를 비롯해 옷칠 공예가 발달, 지역 산업으로 적극 특화하고 있다.

전북 남원 이백면 용재골 일원에서 옷칠 전통 한옥 3채가 건립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가 소규모 살터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 환경에 이로운 옷칠 전통 기법이어 관심을 모은다. 남원시는 지난 2월 16일 이백면 용재골에서 옷칠 전통 한옥 3채 상량식 행사를 열었다. 용재골 옷칠 한옥들은 오는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옷칠 한옥은 옷을 칠한 목재가 견고한 막을 형성해



남원 이백골에서 열린 옷칠 전통 한옥 상량식. 남원시 제공

내구성이 높고 유려한 광택으로 햇볕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깔이 표현되어 원목 느낌이 살아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옷칠은 불이 잘 붙지 않아 화재에 강하며, 원적외선 음이온으로 살균·탈취·항균 작용이 뛰

## 전북 회원동정

### • 입회를 환영합니다



- 이상규 건축사  
이엘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43, 403호



- 정안수 건축사  
그리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길 10-30, 101호

### • 변경(소재지)

- 김학삼 건축사 / 더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55, 405호
- 이정환 건축사 / 이안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로 271, 102호

### • 변경(사무소명 및 소재지)

- 이동욱 건축사 / 와이엔디티(YMDT)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51, 4층

### • 결혼

- 이명엽 건축사 / 이루다건축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3년 02월 25일(토)
- 이상규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3년 03월 11일(토)

### • 부고

- 김동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 / 부친상 - 2023년 02월 07일(화)
- 임채엽 건축사 / 태권बी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2월 18일(토)
- 차승조 건축사 / 우인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2월 20일(월)
- 김상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움 / 장모상 - 2023년 03월 01일(수)

어나 인체에 이로운 특성을 갖고있다. 이백면에서는 이러한 주거 환경에 장점이 많은 옷칠 한옥을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해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사랑&시선\_ 두 번째

## 의무가입시대 읽는 건축사현장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중략)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건축사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965년 제정된 건축사헌장의 일부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 공인 전문 직업인이자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를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관통하고 있다. 맨 앞에 대중문화예술의 최정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형창작 예술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선포, 당당함이 느껴진다. 건축사들은 총회 등 주요 행사에서 한 손을 들고 건축사헌장 제창 의식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사회적 책임을 되새긴다.

지난 2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건축사회 총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 전남건축사회는 3월 8일 개최했고, 전북건축사회는 3월 21일, 광주건축사회는 3월 24일 예정돼있다. 올해 총회의 최대 화두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의무가입 시대, 건축사의 위상과 역할론이다.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22년 법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맞는 의무가입시대는 건축사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건축사의 권익 확대에 나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건축사의 현장은 건축사헌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력서리한 이미지와 꽤 거리감이 있다. 행정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를 그저 사업자로만 취급하고, 시장 좌판의 물건값을 깎듯 설계용역비를 후려치는 건축주의 몰상식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해야 하는 경계인의 삶이다. 설계비 덩핑은 건축사의 자존심과 긍지를 갉아먹고, 그 생채기는 깊다.

지난 2월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의 얘기는 건축사 세계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아내가 건축사인 조 의원은 이날 “건축사헌장에 건축사를 조형창작 예술인으로 적고 있지만 내 아내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 같다. 전문인으로서 말해주면 높게 평가해준 것이고, 관공

서 민원인 정도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전문가로서 조형예술 창조인으로서 발전해야 하기에 의무가입법이 필요했다”고 했다. 행사장을 꺾매운 건축사들이 조의원의 축사에 공감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역력했다. 민간 부분 설계 단가가 30년 전보다 더 못한 현실은 건축사 위상의 바로미터다. 여기에는 동료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치 못한 반칙도 한몫한다. 이러니 행정이 건축사를 전문인 아닌 사업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자초한 결과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사정은 건축사와 건축가를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요인이었다. 길길은 멀다. 내부 단결이 최대 숙제다. 휘슬을 불어 단일대오를 갖겠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회원 권익 확대 역시 “여기있소”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는다. 각자 건축 분야에서 최고라는 건축사와 건축가,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 엄연한 배타적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 벽을 넘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의무가입시대를 맞는 건축사협회의 구성은 다문화 가정과 흡사하다. 건축사와 건축가,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의 다양성을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배려와 관용, 융합은 건축사 모두에게 던져진 실천 덕목이다. 민간 부분 설계단가 현실화 투쟁도 정부를 상대로 거쳐야 할 과제이고, 층수 규제, 해체감리 지정 등 지방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안도 많다.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도 필수이고, 무엇보다 건축사의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을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도 키워야 한다. 전문지식과 능력으로 명예를 존중하는 절제된 행동과 더욱 높은 윤리규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당장 무한경쟁의 고달픔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나, 조형예술 창작 주인공이자 건축 분야 최고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축사의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이용규 편집국장

한 편의 시

### 봄날은 왔는데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봄바람 살랑살랑  
어깨가 들쭉인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운  
남녘 소식의 매화 향기  
설 잠을 깨우고  
마음은 이미 남쪽 강변

이곳저곳 하얀 두건  
밤새 눈이 내린결마  
손 흔들며 반겨주는 매화

다가 서면 다가설수록  
질게 풍겨주는 매화 향기

땅속 깊은 곳 숨겨 놓은  
꽃향기 단지 뚜껑 열어  
온 산하에 흩뿌린다

꽃송이 끝에 매달린 물방울  
반가움의 눈물일까  
그리움의 기쁨일까

그토록 봄 되기를 기다렸던  
매화의 진토 사방에 퍼진다.



## 변호사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 이광원 변호사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 조선희 변호사/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시의회 자문
- 대한변협 대의원

